

인천남지방회, 2024년 송년회

웃음으로 가득한 힐링의 하루



인천남지방회(회장 조철수 목사)가 지난 12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에비슈라(송도점)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연례행사인 송년회에 목회자부부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1부 예배, 2부 축하의 시간, 3부 송년 오찬, 4부 친교의 시간(카페)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2부 축하의 시간은 여현성 목사의 진행으로 제 28회기 지방회 한 해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감상하고, 올 해 지방회 발전에 귀감이 되는 인물과 감찰회를 선정하여 웃

음으로 가득한 미담을 공개하며 특별 시상을 하였다. 또한 모든 가정에 지방회가 준비한 선물과 임원들이 준비한 기념 타올을 선물로 드리며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회장 조철수 목사는 송년회 설교를 통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목회자 부부에게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원들의 섬김과 송년회 찬조로 협력해준 목회자들의 관심 덕분에 모두가 지방회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힐링의 하루였다.

인천남지방회주재지자 여현성 목사



인천서지방회, 2024년 송년 모임

복된교회에서 목회격려지원금 전달

인천서지방회(회장 인일상 목사)는 지난 12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인천 청라 소재 모 뷔페식당에서 목회자 부부 40여 명이 모여 2024년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인천서지방회는 매년 말 복된교회의 후원으로 목회자 가족을 격려하는 송년 모임을 가져왔다.

먼저 지방회 서기 박제영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사회로 회장 및 류우열 목사

의 인사말이 있었고, 박은구 목사(행복한교회) 원로의 기도가 있었다. 중간중간 지방회에서 준비한 흥운권 추첨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복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목회 격려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처럼 지방회 내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서 편안히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인천서지방회주재지자 정병철 목사

서울남지방회, 교직자 월례회 및 2024년 송년모임

“형제의 동거함이 얼마나 기쁜지 나누는 시간 돼”



서울남지방회(회장 구자신 목사)는 지난 12월 17일(화) 오전 11시 급천구 소재 마벨리에 시흥점에서 '교직자 월례회 및 2024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문제영 목사의 사회, 이영균 장모의 기도, 지방회장 구자신 목사의 '바울의 송년회' (딤후 2:1-7)라는 제하의 설교, 박수남 장모의 헌금기도, 박기흥 목사의 광고, 구자신 목사의 축

도가 있었다.

이어 2부 회의, 3부에는 지방회부서 시경원 목사의 진행으로 애잔과 송년회가 있었다. 5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양한 선물을 후원해 감사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서울남지방회주재지자 박기흥 목사

해남비전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오종교 목사 담임으로 취임



서남지방회 해남비전교회가 지난 12월 21일(토)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지방회서기 기정봉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회계 양경애 목사의 기도, 지방회부회계 김상석 장로의 성경봉독, 블레셋찬양단의 특송, 지방회장 박길영 목사의 '주님의 일꾼' (고전 4:1-2)이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지방회장 박길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꾼 된 담임 목회자의 헌신 된 사역의 현상이 되길 바라며, 성도들의 믿고 따라주는 헌신의 자리에서 모두가 '주님

의 일꾼' 으로서의 충성 된 자세를 잃지 말자"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교회' 라는 이름처럼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 2부에는 오종교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었으며, 3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에는 전 총회장 신현과 목사와 광주지방회장 박정택 목사의 권면, 감찰회서기 유재분 목사와 광주지방회 전 회장 이정관 목사의 축사, 해남비전교회 유연진 안수집사의 인사 및 광고, 감찰장 김상선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서남지방회주재지자 기정봉 목사

순전한꿈의교회, 설립감사예배

설립자 염현진 목사



경기남지방회 화성감찰회 주관으로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순전한꿈의교회 설립감사예배가 있었다. 1부 예배는 감찰장 이철영 목사(상신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심상훈 목사(고운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교회설립공인식 그리고 3부 축하와 권면으로 교회설

립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의 날이었다.

순전한꿈의교회 염현진 담임목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지방회 목회자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경기남지방회주재지자 강인규 목사

강서소망교회, 담임목사 위임식

제2대 담임으로 이충호 목사 위임



서울서지방회 강서소망교회가 지난 12월 22일(주일) 오후 4시 '제2대 담임 이충호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지방회 부회장 이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선종영 장로의 기도와 지방회 회계 윤호석 목사의 성경봉독(마 6:9-15) 후 지방회장 송기정 목사의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는 후 축도로 마쳤다.

2부에서는 차리목사 김현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위임식에서 지방회장 송

기정 목사는 이충호 목사를 강서소망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전 교인 앞에서 공포하였다.

3부 축하의 시간에서는 증경총회장 이상분 목사의 격려사와 코디엔교회 이충동 목사의 축사 후 목영두 목사의 마침 기도모든예식을 마쳤다.

강서소망교회는 제 1대 담임 목영두 목사의 부임으로 1986년 9월 7일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다.

서울서지방회주재지자 김현기 목사

목동성결교회, 권사 및 명예권사 임직 감사예배

지역복음화 위한 새 일꾼 세우



전북지방회 남원 목동성결교회(김동식 목사)가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에 권사 및 명예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감찰장 최대식 목사(김계성장교회)의 사회와 지방회 부회장 오경수 목사(종암교회)의 기도 이어 전북지방회 회장 노희성 목사(주안교회)의 '말은 자의 구할 것' (고전 4:1-2)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 담임목사와 지방회 안수위원에 의하여 신복순을 안수하여

권사를 세웠다.

2부 축하 시간에는 황재성 목사(소망교회)의 권면과 심용섭 목사(건강한교회)의 축사에 이어 장준영 전도사 "주의 은혜라"라는 축가로 더욱 빛나는 지리가 되었으며 지방회장의 축도로 목동성결교회 권사 및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마쳤다.

전북지방회주재지자 심용섭 목사

송형관 선교사, 인도차이나 5개국 초교파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동남아시아지방회 태국 컨벤에서 C&MA교단에 필요한 목회 인재들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ATC센터에서 24년간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송형관 선교사(안디옥교회) 파송가 예성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초교파 한인선교사협의회 26대 회장에 선출되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사역하는 6천여 명의 한인선교사들을 대표하는 연합사역을 시작했다.

송형관 선교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

리 예성교단의 유능한 선교사 인재들의 초교파 연합사역의 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2023년 10월 28일(화)~31일(금)까지 3박 4일간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태국 방콕에서 모여 선교사대회와 MK수련회를 진행하게 됨으로 우리 교단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협력기 기대합니다."라며 전국교회와 성결가족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동남아시아지방회 제공)

인천지방회, 2024년 목회자부부 송년회

한 해 동안 헌신한 목회자 부부 위로 격려



인천지방회(회장 이정형 목사)는 12월 16일(월) 오후 6시 2024년 목회자부부 송년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지방회 서기 허상범 목사의 사회, 회장 이정형 목사의 인사말, 부회장 이성근 목사의 기도, 원로목사 위광필 목사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인천지방회 목회자부부 송년회 모임

은 벌써 3회째이다. 매년 이 송년회 모임은 한 해 동안 목회에 헌신하며 애쓰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모임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다. 이날에는 원로목사님 내외분들도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인천지방회주재지자 허상범 목사

이사가야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